

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기업에 치명타

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수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
하나의 서버를 액세스하는 사용자들의 수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
라이센스 수를 초과하게 되고 만다.

그 회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
심각한 불법복제문제에 휘말려 들게 되는 것이다.

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불법복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. 과중한 업무 속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시간을 할애할 경영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? 하지만, 여러 형태의 불법복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기업, 정부 및 교육기관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.

대다수의 기업과 단체들 사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. 첫째,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지,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, 언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었는지를 일일이 기억하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. 다수의 경영자들은 “네트워크에 스프레드 시트 복사본이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뭐야?” 하며 불법복제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하다.

둘째, 기술적으로 미숙한 사람일 경우라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빠르고 손쉽게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렇게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사무 환경에서 마구 증식되고 있는 실정이다. 예를 들면, 기업에서 5개의 컴퓨터에 5개의 정품 워드 프로세서를 설치한다고 치자. 시간이 좀 지나면 직원들이 그 정품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계속해서 설치할 것이다. 그러다 보면 그 기업은 정식 라이센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기업이 되는 것이며 그 기업의 직원들은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.

셋째,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설치된 경우



원 익룡

BSA(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)
SPC(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위원회)

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초기에는 정식 라이센스된 사용자들만이 액세스가 가능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 제한이 무의미해지고 그 프로그램이 전직원들에게 사용 가능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.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수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서버를 액세스하는 사용자들의 수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수를 초과하게 되고 만다. 그 회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불법복제문제에 휘말려 들게 되는 것이다.

MIS/IT 관리자가 불법복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

- ※ 상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때
- ※ 기술적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
- ※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네트워크 시스템이 늦어지고 효율성이 감소될 때
- ※ 회사가 단속대상으로 지목되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게 되었을 때
- ※ 회사가 단속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되고 처벌을 받아 회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법적 라이센스를 구입해야만 할 때

올바른 소프트웨어 관리

그렇다면 불법복제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사무실에서 불법 복제를 방지하려면 올바른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.

**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며
따라서 예산 편성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. 필요한 소프트웨어는
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예산은 실질적이어야 하며
우발 상황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어야 한다.**

사내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사무실 내의 모든 컴퓨터상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정품 여부를 파악하여 불법복제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구입해 교체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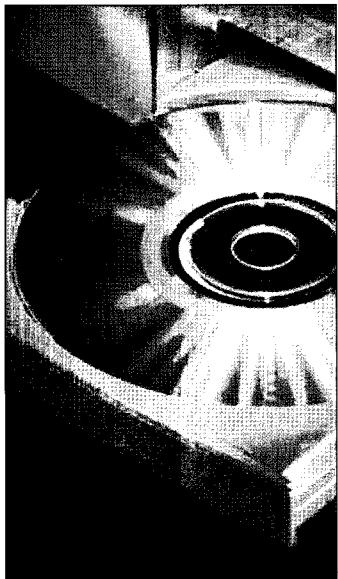
사내의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5가지 단계

①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법을 만들어 적용시킨다.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법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고 올바른 소프트웨어 구입, 설치, 사용 및 처리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. 또한 보다 더 상세한 부분, 예를 들어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집에 가져갈 수 있는지, 집에서 개인이 가져온 소프트웨어를 사무실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.

② 회사측에서는 정품사용이 회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 것인지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상기시켜줘야 한다.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공고 등을 통해 사내의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.

③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자를 지정해 소프트웨어의 구입, 설치, 삭제, 배치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. 또한 라이센스 및 청구서 등의 서류들은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.

④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예산 편성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.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예산은 실질적이어야 하며 우발 상황



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어야 한다. 하드웨어 구입시에는 이미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모두 법적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. 다수의 기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관리에 있어 이 정도 수준의 훈련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 경영자들과 일반 직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다.

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정착된 기업은 앞으로도 그러한 사내 문화를 잘 유지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.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설치 및 네트워크 사용 수준과 라이센스를 받은 소프트웨어의 수를 비교하는 정기적 감사를 집행하는 것이다. 감사는 불시에 정기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. **KCRC**

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은 BSA-SPC 온라인 080-555-5556으로 연락하거나 BSA 웹사이트 www.bsa.org 또는 SPC 웹사이트 www.spc21.or.kr를 방문하면 된다.